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10만원 조정 소식...광주·전남 농축수산업계 반응

과수·화훼업계 ‘반색’...한우농가 ‘시큰둥’

“과수농가 상당한 도움” “10만원에 한우 선물 어려워” 내일 대국민보고회

“10만원이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정서도 있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으로 인상하면 축산농가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농축수산업계는 반색했다. 다만 한우농가는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우 생산 비용이 해마다 늘어 상한액을 올려도 가격에 맞는 선물세트 만들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한우농가들의 하소연이다.

한우농가는 상한액 인상 대신,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대상에서 한우 등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은 아예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문오 합평한우고급육회 회장은 “합평 전지한우는 생고기가 유명하다. 선물용 갈비세트보다 더 인기”라며 “한우농가 입장에서 특성을 감안해 상한액 제한을 없애 농촌경제를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김영중(53) 양양농협 조합장은 “한우 등 일부 특수성이 있는 농축수산물도 김영란법 선물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비용이 많이 들고 사육 기간도 긴 한우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선물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면 1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의 아쉬움과는 달리 굴비와 과수·화훼 농가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인상 소식을 반겼다. 한우보다 생산 단가가 낮아 10만원으로도 충분히 상품성 있는 선물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현진(62) 영광굴비협동조합 대표이사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인상이야 한다”면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소비심리는 점차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수농가와 화원 등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계기로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 옥과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과일은 한우나 굴비보다는 타격을 덜 받았지만, 프리미엄 사과에 소비가 안 돼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가득이나 수입과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화원을 경영하는 김모(40)씨는 “김영란법 여파로 5만원

짜리 화분·꽃바구니를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해 당혹했다”며 “10만원으로 완화되면 반쯤은 해소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인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장행의를 거쳐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평=합평한우고급육회 hwang@kwangju.co.kr
/*영광=김민석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나주 버스업계 ‘정류장 갈등’

나주교통 ‘999번, 999-1번’ 광주 도심 노선 확대 요구 광주 시내버스 업체 ‘존립에 심각한 문제...절대 반대’

나주지역 버스업체가 광주 도심 노선의 정류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광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주지역 버스의 광주 도심 노선 경우 정류장이 늘면 당장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매출이 줄기 때문이다.

27일 광주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는 광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주지역 버스업체의 광주 도심 노선 확대는 광주 시내버스 존립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와 노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주)나주교통의 ‘999번, 999-1번’ 사업계획변경 재조정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나주지역 버스의 광주 도심 구간 경유지를 현재 15개소에서 37개소로, 22개소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노선은 나주터미널에서 전남대 후문까지며, 거리는 31.5km에서 31.7km로 200m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나주교통은 광주지역 구간 정류

장을 22개소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7월 15개소로 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에 대한 조건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나주교통은 이에 반발, 국토부에 경유지를 37개소로 늘려달라고 재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광주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 측은 “나주, 화순 등 인접 5개 시·군 농촌 버스의 광주 운행 비율이 타 광역시(대구 13.9%, 부산 10.6%)보다 월등히 높은 22%에 달하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는 한 해 3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나주교통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하면 인접 시·군들도 추가로 광주 도심 진입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주교통 측은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편의 그리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서는 운행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황현산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선임

목포 출신의 문학평론가 황현산(72·사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신임 위원장에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황현산(72)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공식으로 남아 있던 위원 8명이 최근 총원인데 이어 이번에 수장이 선임됨에 따라 문화예술위는 본격적인 해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지목되면서 지탄을 받았다.

황 위원장은 문체부의 임명 발표 후 전화통화에서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실행태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먼저”라며 “과거의 잘못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의 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산적인 현안이 많아 어깨가 적잖이 무겁다”면서도 “조기도 안정시키고 문화예술위를 바로 세우는 데도 역점을 기울여겠다”고 덧붙였다.

목포 출신의 황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30여 년간 고려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자와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광주일보 ‘광일춘추’ 필진으로도 활약한 황 위원장은 그동안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 ‘얼굴없는 희망’ ‘말과 시간의 깊이’ ‘우물에서 하늘 보기’ 등을 집필했고 ‘아블리네르’ ‘어린왕자’ ‘라모의 조카’ ‘말라메 시집’ 등을 번역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청년 지원 통장’ 경쟁률 2.5대 1...주거비·결혼자금 최다

‘1+1 통장’인 ‘청년 희망디딤통’ 신청자가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주거비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통장 개설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7일 ‘청년 희망 디딤통’ 모집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지난 1~10일 신청자를 모집해 심사를 거쳐 가입자 1000명을 선정했다. 홈페이지 모집공고 조회 수가 1만건을 넘었으며, 2521명이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컸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신청자는 여성(69%)이 남성(31%)보다 훨씬 많았다. 용도는 주거비(39%), 결혼자금(34%), 구직활동비·창업자금(22%), 학

자금대출 상환(5%) 등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순천 600명, 목포 456명, 여수 146명, 화순 146명, 광양 130명, 무안 101명 등이었다.

가입자들은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도에서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모두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만기 이자는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시중 일반 정기적금의 두 배 수준인 2.3%를 적용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500명을 추가 모집해 2020년 이후 2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가입자 모집은 다음달 말께 공고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정, 청년·고령·신혼부부 맞춤 주거대책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각각 100만호와 소형임대주택 30만호를 각각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야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도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 남구 봉선동 1층상가 120㎡ 인테리어 잘되어 있음, 최고요지, 아파트정문앞 상가 밀집지역 보5천만원340만원, 권리금 일천만원(조정가)
- ▶ 금곡동 층상가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정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기), 용지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합)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 장성군 북하면 삼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계림오거리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